

#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고객께 드리는 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시대에도 연탄가스(CO)와 같은 무서운 중독 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CO 중독 사고 인명피해 110명)

가정집 특성상 환기시설 미비와 배기연통 규격 미비 및 안전 불감증에 의한 CO중독사고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2006년 9월 8일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CO 중독사고도 보일러 폐 가스에 의한 집단 중독사고 사건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27건의 CO가스 중독으로 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종각역 지하상가 CO중독 사건으로 인해 CO경보기를 고객님 댁에 설치를 권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방식을 이용한 완벽한 CO가스 감지 기능을 내장한 최첨단 제품입니다. 고객님 댁의 가스안전 CO감지기와 함께 하십시오.



이석정 사장  
서울 중구 흠시스마트

## 일산화탄소(CO) 감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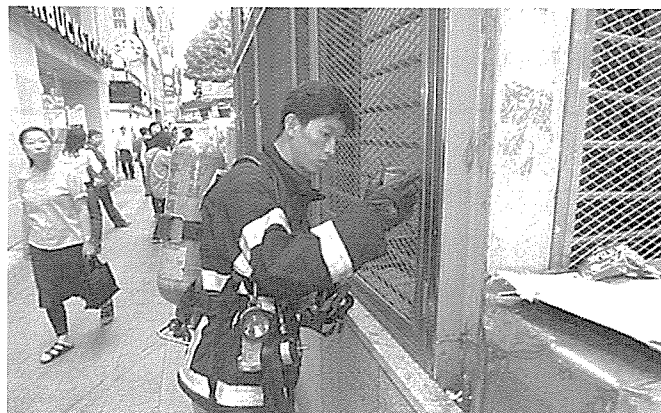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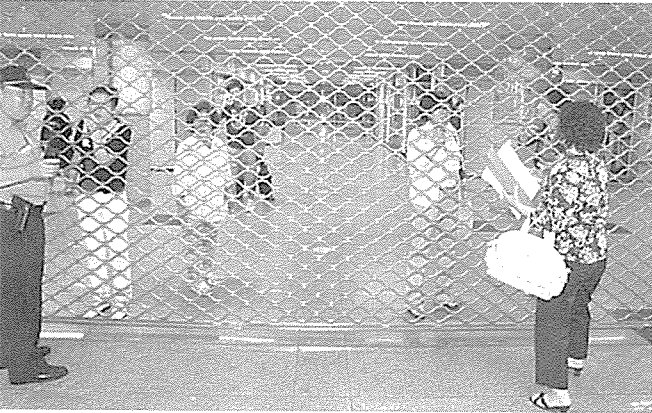
당신은 필요와 악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필요를 선택하시겠지만요.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무심과 편견으로 필요를 인식 못하는 시행착오를 쉽게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악 조건도 조금의 양념처럼 가미되면 나의 발견에 경각심과 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필요조건을 알면서도 지나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만년 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무시안일 주의야 말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도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CO(일산화탄소) 누출 사건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CO(일산화탄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 일수도 있지요. 차라리 연탄가스라고 말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지하상가 상인 60여명이 중독 된 사고를 일으킨 CO(일산화탄)는 불과 공기 중 농도(%)가 0.02%에 불과 했기에 다행이었지요.

만약 극단적이긴 하지만, 공기 중 농도가 1.28%였다면 사태는 악화일로였을 것입니다. 공기 중 농도(%)가 1.28%에 불과 6~7분 정도 노출되면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CO(일산화탄소)는 무서운 독성을 지닌 치명적인 가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편리성으로 사용되는 각종 가스 기기들, 편리함 뒤

에 숨어 있는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이제는 예방이란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살게고 또 살게다보면 예방에 조금이나마 근접할 순 있겠지요.

하지만 CO(일산화탄소) 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로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 눈으로 만의 예방은 한계가 있습니다.

편안히 잠든 사이 조용하게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적 살인마인 것입니다.

이에 과학인들은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알기에 인간의 감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무력, 무기, 무취의 특성을 읽을 수 있는 CO(일산화탄소) 감지기 특허를 출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젠 당신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질 CO(일산화탄소) 감지기와 함께 생명 설계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